2026년 10월 30일(금) 구역예배 자료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장 1~7절**
(1)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가 313장을 부릅니다. (2) 구역 식구 중 한 분이 기도합니다.
(3) 사도행전 6장 1~7절(신196)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4)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5) 찬송가 196장을 부르고, 봉헌한 이후 봉헌기도 합니다. (6)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구역예배를 마칩니다.
〈인터넷 참조〉 http://www.pckyesan.or.kr으로 접속, 10월 25일자 주일예배 말씀

<생각하기>

나라에 관계 없이, 시대에 관계 없이, 조직의 규모에 관계 없이, 조직의 업종에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리더십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권한을 적절하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박사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관련해,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할 일이 많으면,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현명하게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존 맥스웰 박사는, 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리더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고, 리더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에, 리더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세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조직을 성장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설교의 요약>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교회가,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된 사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열두 사도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예루살렘교회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성도들 중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과부들이 있어, 교회가 그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수와,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의 수가 늘어나면서, 열두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해결책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들 사역의 우선순위를, 그들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정하고, 구제 사역을 위해서는, 일곱 집사를 세워, 그 일을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교인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일곱 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역은,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만 힘쓰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수가,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특별히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성도들 가운데, 자격을 갖추어 선택받은 일꾼들이,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우리 교단 헌법은, 목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청빙하는 이유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교역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줄 때, 또한 다른 사역들은, 교인들이 분담하여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 일곱 명의 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제시했던 자격 요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신앙과 성품이 좋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위해 뽑혔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세속화되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일꾼을 뽑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교인들이, 교회 봉사를 꺼려, 일꾼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단 세우고 보자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당장은 사람을 세울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탈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디아코네오(διακονέω)’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디아코노스(διάκονς)’입니다. ‘일꾼, 사환, 하인, 수종자, 섬기는 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나오는 ‘집사’라는 단어가, 이 ‘디아코노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사는, 누군가의 하인처럼,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여 살리시기 위해, 하인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직분이 있다는 것은, 각 직분마다, 서로 다른 모습과 사역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러 계급이나 서열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집사는, 구제와 재정 출납의 일을 하는 것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같은 봉사인데, 역할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 어떤 사람은 재능을 통해,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의 수고를 통해,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하인처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저명한 설교자이며 작가인,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책, 『사도행전 속으로 3』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위해 하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위한 하인이 되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당연한 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기도로, 물질로, 재능으로, 손발로, 누군가의 하인이 되어 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자신의 하인이 되어 주신, 주님의 하인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하인처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의 하인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길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은, 자신을 섬겨 주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날로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하인처럼 섬겨 주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의 자리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겨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날마다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누기>

1. 나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앞으로 어떤 사역으로 교회를 섬길 것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

하나님! 내 삶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다른 성도들의 하인이 되어 주는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구역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는 날로 더 많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